

기다렸다 손흥민...20일 맨유전 출격

EPL 시즌 재개 일정 발표 토트넘 30라운드 홈 경기 24일엔 셰필드전 원정

국내 팬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소속팀인 토트넘으로 복귀한 손흥민(28)이 다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뛰는 모습을 한국시간으로 20일 오전에 보게 됐다.

토트넘은 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재개되는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남은 9경기 가운데 30-32라운드 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EPL 사무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정국에서 오는 17일부터 이번 시즌 남은 일정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그동안 20개 클럽을 대상으로 5차례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펼쳤다.

토트넘은 한국시간으로 20일 오전 4시 15분 맨

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30라운드 홈 경기를 펼친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팀훈련에 나선 손흥민의 '독점 도전'이 기다려지는 대목이다.

토트넘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 4시 15분 홈 경기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31라운드를 치른 뒤 7월 3일 오전 2시 원정으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만난다.

토트넘은 29라운드까지 승점 41로 정규리그 8위에 머물러있다. /연합뉴스



헤리 케인과 훈련하는 손흥민 손흥민(왼쪽)이 최근 영국 런던의 펜텔 트레이닝센터에서 헤리 케인과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수입 1위 호날두 "내가 제일 잘 나가"

지난해 638억원 벌어 연봉보다 200억 더 많아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사진)가 인스타그램에서 벌어들인 돈이 자신의 연봉보다 200억원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대중지 '더 선'은 '버즈빙고'의 자료를 인용해 "호날두가 지난 1년간 전 세계에서 인스타그램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유명인사 1위를 차지했다"고 5일(한국시간) 보도했다.



2억2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호날두는 지난 12개월 동안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3개의 광고

게시물을 올려 4170만파운드(약 638억원)를 벌어들였다. 한국 돈으로 게시물당 14억원 정도인 97만 1000파운드를 번 셈이다.

이는 호날두가 구단에서 받는 연봉보다 200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호날두는 유벤투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연봉 삭감 이전을 기준으로 약 418억원인 2730만파운드를 받는다.

호날두의 오랜 라이벌인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는 382억원 정도인 2520만파운드로 2위에 올랐다.

데이비드 베컴이 6위(960만파운드),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8위(670만파운드),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AC밀란)는 10위(630만파운드)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K리그1 팀 합류 FA컵 3라운드 7월 1일 개최

K리그1 팀들이 합류하는 FA컵 3라운드 경기가 7월 1일 열린다.

지난 6일 FA컵 2라운드 경기가 진행되면서 3라운드 대진이 확정됐다.

K리그1에 복귀한 광주FC는 파주시민축구단을 4-2로 꺾은 김포시민축구단을 상대한다.

2라운드에서 충주시민축구단을 2-0으로 제압한 전남드래곤즈는 '승격 경쟁자'인 경남FC와 3라운드에서 만나게 됐다.

2라운드에서는 K4리그의 울산시민축구단이 이번의 주인공이 됐다.

K리그2의 부천FC와 상대한 울산시민축구단은 후반 45분에 나온 김태훈의 골을 지키면서 1-0 승리를 거뒀다. 울산시민축구단의 다음 상대는 상주 상무다.

울산시민축구단 이외에는 모두 상위리그 팀이 승자가 돼서 3라운드에 진출했다.

지난해 FA컵에서 4강에 진출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화성FC는 지난해 준우승팀 대전한국철도를 연장 승부 끝에 3-2로 제압했다.

최치원이 연장 후반 '극장골'을 장식하는 등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화성FC는 3라운드에서 올 시즌 K리그1 무대를 다시 밟는 부산아이파크를 만난다.

K3리그의 목포시청은 K리그2 경남FC와 연장 승부까지 벌였지만 아쉽게 3-4로 지면서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K5리그의 광주서구효창FC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효창FC는 K리그2 수원FC에 0-10 대패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동강대, 대학스포츠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로부터 3년 연속 재정 지원을 받는 등의

동강대 운동부(부장 노재성 교수)는 최근 KUSF가 발표한 '2020 대학 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 선정 결과 5500여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KUSF는 대학운동부의 육성 지원과 대학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지난 2015년부터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강대는 2018년 3000여만원, 지난해 4800여만원, 올해는 5500여 만 원 등 매년 지원금이 증액돼 야구부와 축구부 등 2개 운동부를 적극 지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연경 흥국생명 복귀

"후배들 더 잘 대우해 달라"

연봉 3억5000만원으로 낮춰

여자 배구의 세계적인 거포 김연경(32)이 마침내 흥국생명의 분홍색 유니폼을 다시 입는다.

흥국생명 구단은 지난 6일 김연경과 만나 복귀 협상을 마무리했다. 김연경은 연봉 3억5000만원만 받는 조건에 흥국생명으로 돌아온다.

이로써 김연경은 2008-2009시즌 흥국생명을 썬 피인컬렉션 우승으로 이끌고 2009년 입대 선수 신분으로 일본 JT 마블러스로 떠난 이래 해외 생활을 마치고 햇수로 11년, 시즌 개념으로는 12시즌 만에 다시 V리그로 컴백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연봉(4억5000만원)과 옵션(2억원)을 포함해 최대 6억50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김연경에게 전했다. 김연경이 후배들을 더 잘 대우해달라며 스스로 몸값을 낮췄다"고 소개했다.

김연경은 "무엇보다 한국 팬들을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며 "많이 응원해준 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연경은 한국 배구가 낳은 독보적인 공격수이자 세계적인 스타다.

올해 4월 터키에서 귀국한 김연경은 지난날 여자 시바시 구단과의 계약이 끝난 뒤 새 행선지를 물색해왔다. 터키 진출 당시 자유계약선수(FA) 권리 획득 인정 문제, 완전 이적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임의탈퇴 선수로 묶었다.

김연경이 스스로 몸값을 낮추며 따라 흥국생명은 선수 연봉 책정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음 시즌 여자부 구단의 샐러리캡은 연봉 18억원이고 옵션 5억원을 포함한 23억원이다.

흥국생명은 FA로 이재영(연봉 4억원과 옵션 2억원 등 6억원), 이다영(연봉 3억원과 옵션 1억원 등 4억원)에게 이미 10억원을 투자했다. 나머지 13억원으로 김연경을 포함한 모든 선수의 연봉을 해결해야 했지만, 김연경이 최다치에서 3억원이나 덜 받아 이 몫을 후배들에게 주기로 함에 따라 연봉 문제도 무리 없이 해결됐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 행정기관 직장팀 간담회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전남체육회관에서 안용준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총감독 등 19개 기관, 21개 종목, 34개 팀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행정기관 직장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 민선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광주시체육회는 4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생활체육위원회를 열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여성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침입자
3관	언더워터, 영웅: 천하의 시작
4관	침입자
5관	침입자
9관	위대한 쇼맨, 프리즌 이스케이프 슈퍼스타 두루
7관 씨네커플	아홉 스님, 프리즌 이스케이프 프랑스어자, 더 플랫폼
8관 씨네커플	그집,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최대주 感應動通
2020. 5.21.(목) ~ 6.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소년단>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즐거움 문화산책